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격려사

만물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평화로움과 풍성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 속에 국민들 모두가 힘들어하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반영하듯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지난 10년 동안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우리 사회에 생명력을 불어넣기보다 오히려 생명을 등한시하는 풍조가 쉽게 가라앉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 하나만으로도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모든 생명의 존엄함을 각성해서 자신의 생명과 함께 다른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여 해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의미 실현의 모범으로써, 지난 38년 동안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세상보다 소중하다’는 생명존중 사상을 묵묵히 실천해 온 <한국 생명의 전화>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4 생명사랑 밤길걷기 대회”는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에 맞서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삶이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돌보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도 내밀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생명사랑 실천의 첫걸음으로 우리 종교인 공통의 실천과업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뜻 깊은 행사를 주관해 주신 <한국 생명의 전화> 전병금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님, 아시아투데이의 백석기 대표이사과 한국교육방송공사 신용섭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평화와 안녕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자 승